

“세계적 문화유산 잘 지켜주길”

석굴암등 인증서 전달한 세계유산추 드로스트 사무국장

“경주는 신라의 천년고도로 건축유산 뿐만 아니라 고분도 많이 남아 있는 세계적인 유산입니다. 민일 고속철도가 경주도로 통과와 석굴암등 경주지역 문화재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온다면 세계유산위원회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한반도 통일 후 남·북한 공동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세계의 유산입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보존책을 체계적이며 포괄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이런 보호와 관리에 전세계가 주시할 것입니다.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한국은 최근 개발논리와 문화재 보존 차이를 두



수요 인터뷰

굴암, 해인사·팔만대장경관·관전, 종로 등 우리 문화재 3건에 대한 유산 인증서를 전달하기 위해 지난 14일 내한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베르트 폰 드로스트 사무국장(57세·독일)은 경부고속철도의 경주통과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고 국민들의 견해가 분분합니다. 최근 경주에 고속철도 통과를 둘러싸고 그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주지역도 둘러보셨을 텐데요.

▲문화재 보존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은 단일 문화재에 대한 훼손보다는 유적경관등 주위 환경의 파괴입니다. 경주는 수많은 문화재와 고분등으로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박물관입니다. 경주 도심심을 관통하는 고속철도 계획은 도시를 두동강 내는 등 심각한 문화재 훼손을 초래할 것이 확실시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화재 뿐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현명한 결정이 필요한데 단기적인 경제적

국가차원 체계적 보존을

드로스트 사무국장은 지난 16일 오전 문화체육부장관에게 “현저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공인받은 해당 유산이 인류전체를 위해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의 세계유산 인증서를 전달한 뒤 17일~19일까지

다한 사례입니다. 경주도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독일이나 프랑스의 고속철도도 도시근처를 지날 때 도시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들의 사례가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고속철 경주통과와 노선과 관련해 추진하고 있는 안들을 모두 보았습니다. 문화유적이 밀집된 도심지역은 보존하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전천지역은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도심권통과 지역은 어느 나라나 이미 타지역보다 개발이 더 필요성도 그리 높지 않을 것입니다.

유네스코는 이집트와 피라미드 주변에 순환도로를 건설할 때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을 설득해 공사를 포기하도록 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 영국의 선사시대 유적이던 스톤헨지 주변 도로공사, 그리스 델피신전 부근 알루미눔공장 건설등도 유네스코의 요청으로 공작건설을 중

“고속철 경주통과 반대...유물보존·관리 세계 주시”

훼손위기 처한 세계유산 80여건 ‘등록 취소 검토’

지 해인사와 불국사 당사, 세계유산 등록 기념세미나, 종묘고유제 및 세계의 문화유산 경축음악회 등에 참석하고 20일 출국했다.

—한국 문화재 3건이 세계 유산으로 등록된 의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문화유산 등록은 한국이 경제대국이던 점 말고도 문화민족임을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입니다. 또한 세계 유산으로 등록된다는 것은 해당 문화재를 당사국이 행정·재정·기술적으로 더욱 철저하게 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유네스코도 이제부터 한국의 문화유산 보존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국의 문화유산을 직접 답사하신 소감은 어떻습니까.

▲불국사·석굴암, 해인사 팔만대장경 등은 뛰어난 인류의 유산입니다. 특히 이들 문화유산은 한국인의 것이 아니고

의 이미지를 세계에 심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문화유산들이 이처럼 개발과 함께 열악한 기후환경으로 위기에 처해있어 보존을 위한 구체적 공동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시한번 한국은 문화재의 하나인 경주를 포기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고속철도의 경주통과 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드로스트 유네스코유산위 사무국장은 독일 괴팅겐대학에서 산림과 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난 73년부터 유네스코 생태학 기획전문가로 인연 맺은 후 85년부터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장으로서 활동해 왔다. 지난 81년에는 유네스코가 실악산을 생물권 보존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평가단원으로 내한하기도 했다.

문화부리 경주를 지켜야

—세계 문화유산들이 계속되는 개발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유네스코 차원의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세계문화유산 협약의 지침에 따라 일정기간 ‘위기에 처한 문화유산’에 등재하는 절차를 거쳐 국제적인 여론환기와 최악의 경우 등록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도 가능합니다. 세계적으로 현재 ‘위기에 처한’ 유산은 80여건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이제 세계 문화유산의 보호를 통해 문화민족

의 이미지를 세계에 심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문화유산들이 이처럼 개발과 함께 열악한 기후환경으로 위기에 처해있어 보존을 위한 구체적 공동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시한번 한국은 문화재의 하나인 경주를 포기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고속철도의 경주통과 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드로스트 유네스코유산위 사무국장은 독일 괴팅겐대학에서 산림과 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난 73년부터 유네스코 생태학 기획전문가로 인연 맺은 후 85년부터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장으로서 활동해 왔다. 지난 81년에는 유네스코가 실악산을 생물권 보존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평가단원으로 내한하기도 했다.

유영란·이윤호 기자

나의 수행일기



김영만 <불교독파화강>

코흘리게 시절 어머니 손을 잡고 자주 가던 곳이 있었다. 조그마한 돌 하나 건너고 산길 종일 걸다가 수풀 사이 오솔길을 돌아 서면 펼쳐지는 돌의 바다. 천불천탑이 있는 전남 화순군 도곡면 운주사.

무명 바지저고리를 입었던 춘양국민학교 시절, 봄 가을이면 운주사로 소풍을 갔다. 돌부처님 배위에 올라 친구들과 어울려 도사리를 먹었다. 돌부처님과 돌탑은 근엄하다거나 무서운 존재가 전혀 아니었다. 운주사는 우리들의 놀이터나 다름없었다. 40여년이 지난 지금도 내게는 그 부처님들이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다.

내가 불교에 입문한 가장 큰 계기는 태안사 포교당인 광주공문회에서 발행한 청화큰스님 법어집 <마음의 고향> 책표지 그림을 삼독하게 되면서이다. 이때가 1990년. 유행사조의 물결이 한복되지 않고 내만의 작품만을 모색하던 때였다. 나의 참모습을 돌이켜보게 하는 계기였다. 이후 나의 작품의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 그것은 고향회복이었

존적 연구구조를 이루듯이 사회 또한 관계와 관계를 이루면서 존재하고 유지된다. 이러한 관계를 의면하고 자신만을 증식하고자 하는 것이 아이라고 한다면 자신만을 위한 삶은 사회의 암적 존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의 육체에서 불순물이 제거될 때만이 생명이 건강하게 유지되듯이 나 자신의 창작활동도 삼독심이 제거될 때만 진정한 창작활동이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삼독심의 제거는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기준이며 활력이다. 대상이 아니고, 지배가 아니며, 욕망의 발산도 아니어야 한다. 이럴 때 진정한 개인과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상호의존적 연구구조가 이뤄지는 것이다.

창작 화두는 ‘부처님 가르침 따라’

‘삼독심 버리자’ 발원하며 고향회복 작품 구상

다. 잃어버린 유년기의 향수와 사라져가는 우리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작품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의 작품 화두는 오직 ‘심일견처(心日見處)’ 즉, 마음은 언제나 부처님 가르침을 좇는다는 것이다. 부처님이 제시한 가르침을 망각하지 않고 외적인 유행주의적 화풍을 지양하



누구든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도 불교가 무엇인지 모르던 시절에도 표현은 달리 했지만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며, 이런 삶이 가치있는 생활이라고 생각했고 주위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했다. 문제는 실천이다. 불교는 가르침과 더불어 실천수행을 무엇보다 강조한 종교이다. 실천이라고 무슨 거창한

고 처분한 마음을 갖는 것. 10여평의 작업실 공간이 나의 수행처다. 그리고 깔고 깔고 파는 불교독파화강 작업이 나의 수행이다.

94년에는 목판화와 글모음집인 <고향가는 길>을 펴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광주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독자들과 전시장을 찾은 분들께 나의 자치만 뜨거워 부처님의 목소리를 전해왔다고 자부한다. 물론 부처님의 광대한 설법의 바다에 비교한다면 한모퉁이의 물에도 못미치지 않지만, 나는 나의 운명을 던진 공양이었다.

이즈음에는 민족문화의 폐쇄와 심각한 환경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돌이켜 보면, 우리의 현대사는 식민지 압축기와 외세에 의한 민족분단, 비민주적인 억압체제의 헛바퀴속에 갇혀 있었다. 이로 인해 인간의 물질적 욕구만이 모든 것이니 양 물질주의가 팽배하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미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제시해 주셨다.

인간의 몸속에 무수한 세포들이 상호의

움직임이 아니다. 아침 저녁 108배가 나의 수행이라면 수행이다. 무슨 특별한 발원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절을 반복하며 ‘삼독심을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만 한다.

이같은 기원은 나의 작품활동과도 관련되어 아니라고 생각한다. 위기에 처한 오늘의 인류문명을 구원할 수 있으며, 심각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있는 단초이며 해결 방안이다.

나는 앞으로도 목판화에 매달릴 것이다. 우리나라 전통문화에 뿌리를 내리고 환경과 현실에 대한 경종을 울려주며 두드릴 것이다. 내가 이를 수 있는 보살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목판화작업도 수행과 작업이 일치될 때 더욱 깊은 안목을 확보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세계에 몰입해서 대자유속에서 꿈틀대는 무한한 생명력을 통해 이뤄진다. 마음의 아름다움과 정정함을 끝없이 노래하고 싶다.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암·중풍·성인병·부인병·신경통·관절염·당뇨병·고혈압·심장병 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속뜸비방!”

“뜨겁지 않고 흥터가 생기지 않는” 신비의 바라밀 속뜸기 보급 안내

바라밀 속뜸 건강요법으로 왜 인체의 병이 치료되는가?

인체에 병이 생기는 것은 마비, 화상, 염증, 수축, 경화, 세균, 내분비 부조화, 혈액순환장애, 신경과 체액의 불균형, 기(氣)의 순환이 원활치 못하는 등으로 병이 생기는데 바라밀 속뜸으로 온몸에 퍼져있는 응혈맥을 깨워주는 경맥중 매듭, 단전, 중환혈에 속뜸의 강한 에너지를 경맥에 투입시키고 피부호흡, 모세혈관, 기혈(氣血) 작용을 적용시켜 기혈을 순환시키며, 5장6부과 각 기관과 조직에 기혈을 보충시켜주고 염증과 세균과 온몸의 노폐물을 배설시켜주어 질병을 치유하는 원리이다.

속뜸은 속을 태울 때 생기는 속적기스의 성분과 열자극으로 병이 치유되기 때문에 바라밀 속뜸에서는 속적기스를 최대한 많이 피부표피(피구멍) 속으로 흡수시켜 거기에 오장육부와 14경락을 잘 통하게 하고, 고통이 없는 열자극까지 주어 염증을 억제하고 노폐물을 산화시켜 병을 치료시키는 원리이다. 살갗을 태워서 뜨거운 고통이나 염증을 생기게 하는 제대식 속뜸방법은 주로 뜨거운 열자극 효과만을 병을 치료코자하여 병을 완치시키는데는 참기 어려운 고통과 함께 오랜 시간이 걸리고 미흡한 것이다.

● 속뜸은 몇천년 동안 인체의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가 매우 우수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 왔으나 뜨거운 고통을 견디기 어렵고 몸에 흥터가 생긴다는 이유 하나로 외면되어 왔습니다. “이제, 바라밀속뜸기로 뜨거운 고통없이 자신의 질병을 완치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현재 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 평생 질병에 시달리지 않는 건강한 삶을 원하시는 분, 수습민원인의 보약과 약을 드시고, 별 방법을 다 써봐도 효과를 못 보신 분, “이런 분은, 시술이 간편하고 즉효성이 두드러진 바라밀 속뜸기로 집안에서 쉽게 자신의 병을 완치시켜 보십시오!”

바라밀속뜸기의 원리요법과 특징

신약중의 신약인 강화 약작용을 입선하여 속뜸의 재료로 사용하고 약력의 생약력으로 질병치료와 미묘한 범위를 맞출 수 있게 하였다.

원약제와 과용과 경면중 등 10여가지로 만든 속뜸기종 병 방범

약력이 타탄서 발생하는 속적기스와 원발원의 약효 성분이 합쳐져서 속뜸기의 작용으로 32배 힘차게 경혈속으로 새겨지고 스며들게 하여 5장6부의 기혈을 순환시키고 염증과 세균을 제거하여 질병을 치유시킨다. 이때 피부표피에 닿는 속적기스는 혈관, 향균, 항독작용을 하는 인터페론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속뜸치료와 병행하여 복용하는 병약을 얻을 수 있다.

주요질환 대응력이 편리한 시간에 혼자서 32배 열자극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점이 큰 특징

5장 6부에 생기는 모든 병의 치료의 근간이 되는 매듭, 단전, 중환, 32배 열자극에 의한 경혈속으로 뜨거운 고통이나 흥터가 없게 하여 혼자서 간편하고 효과있게 속뜸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바라밀 속뜸기요법



속뜸기 내용

- 1) 바라밀 속뜸을 할 수 있는 15가지 도우미(도우미/강화약/약 2개/원약 포함)
- 2) 속뜸도구세트(반영구적)
- 3) 속뜸기 원형도(전자기 사용)

고급 백색 공단천위에 100% 경면주사로 제작된 금강경 신탄다라니(규격:60cm×160cm)의 엄청난 위신력을 아십니까?

돌아가신 분들에게 극락왕생하도록 도와주던 신탄다라니를 영적인 기를 발하도록 100% 경면주사로 만들어 살아있는 사람이 깔고 앉는다면 살아 극락을 찾고 일체 재해를 소멸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하에 시도된 신탄다라니의 사용이 실로 믿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일이 수없이 일어나는 데에 많은 스님들과 신도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토록 어려웠던 사업의 운세가 호운으로 바뀌고, 아픈 사람이 저절로 병이 낫고, 수행생이 집중력이 생기고 실수를 하지 않아 거다 합력하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운기가 좋은 운기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증용, 바라밀 속뜸 건강치료요법 책자 참조)

현재 이러한 영험력을 경험한 스님들과 신도들에 의해 많은 신도들이 석구수대로 다투어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바라밀 속뜸 때 이러한 영험력이 합쳐져 질병이 빠르게 완치될 수 있도록 속뜸기 구입시 금강경 신탄다라니 1폭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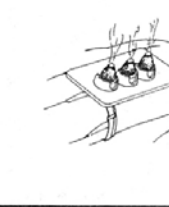
구입문의 및 상담 불교 바라밀 건강연구회

■ 부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 (한신상가 5동 5층)
 ● 대한불교조계종 보문포교원(원장 각광스님)
 ● 부설: 불교바라밀건강연구회
 ● 전화: (051) 864-3740

■ 서울: 경기: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 전화: (0335) 34-9490, 39-1906
 / 가간: (0342) 706-3060

바라밀 속뜸 건강요법 · 치료의 사례들
(바라밀 속뜸은 이런 병들을 고칩니다)

중풍, 허리디스크, 요통, 좌골신경통, 관절염, 안면마비, 만성두통, 빈혈, 수축성중, 만성위장병, 위염, 계양, 위암, 대장염, 간염, 간암, 간경화, 황달, 당뇨병, 비만증, 방광염, 전립선염, 자궁이상, 생리불순, 냉증, 질염, 요도염, 치질, 불임증, 심장, 저·고혈압, 폐렴, 기관지염, 폐결핵, 기관지 천식, 편도선염, 후두염, 축농증, 전신피로, 경년기장애, 기미, 주근깨, 여드름, 배근살, 피부미용, 시력저하, 알레르기성세질, 술·담배 많이 드시는 분, 정력감퇴, 각종 성인병 예방 등



5장 6부에 생기는 모든 병의 치료의 근간이 되는 매듭, 단전, 중환, 32배 열자극에 의한 경혈속으로 뜨거운 고통이나 흥터가 없게 하여 혼자서 간편하고 효과있게 속뜸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바라밀 속뜸기요법

알 등의 난치병은 물론이고 작은 질병에서 큰 질병까지 온갖 질병을 집안에서 자기손으로 쉽게 치유시킬 수 있으며 질병에 대한 체내의 면역기능과 저항력을 증강시켜 주는 바라밀 속뜸기

■ 바라밀속뜸기를 개발하신 각광스님 약력

-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보문포교원 원장
- 부설 불교바라밀건강연구회 회장
- 10여년간 불교건강 및 자연건강법을 연구·수련
- 다년간 수련생을 모집하여 수련과 강의 등을 하고 있음

알 등의 난치병은 물론이고 작은 질병에서 큰 질병까지 온갖 질병을 집안에서 자기손으로 쉽게 치유시킬 수 있으며 질병에 대한 체내의 면역기능과 저항력을 증강시켜 주는 바라밀 속뜸기

● 사찰에서 요청시 순회강의도 별도로 신도들에게 스님께서 직접 보급하시고자 하신 분에게서 일차 스님을 찾아뵙고 보급방법 등을 의논드리겠습니다.

(보급부 비로 불사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